

시편 72편 묵상 -
주님의 가난한 백성은
임금의 의로운 재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역	사역
1 하나님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1 하나님, 주님의 판단력을 임금에게, 주님의 의로움을 임금의 아들에게 내려 주십시오.
2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2 임금이 주님의 백성을 의로 재판하고 주님의 가난한 이들을 공의로 판단케 하소서.
3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3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언덕들은 공의로 열매를 맺게 하소서.
4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 으리로다	4 임금이 가난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궁핍한 사람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고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 주십시오.
5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5 해가 있을 동안에 그들로 주님을 경외케 하소서. 달이 빛을 잃을 때까지 대대로 경외케 하소서.
6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6 임금은 베어낸 풀 위에 단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낙기처럼 내려오소서.
7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7 그분이 다스리는 동안 공의가 움터 나오고 달이 다 닳을 때까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소서.
8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8 임금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9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9 광야 유목민이 임금 앞에 엎드리고 원수는 땅바닥 먼지를 핥게 하소서.
10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10 다시스와 섬나라의 왕들이 예물을 바치게 하소서.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11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11 온 세상 왕들이 그분께 경배하게 하소서. 온 세상 나라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소서.
12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2 그분은 하소연하는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고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들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13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3 그분은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구해주신다.
14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14 그분이 그들을 억압과 폭력에서부터 구속해 주시니 그들의 피를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15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 하리로다	15 임금님, 만수무강하소서 스바의 금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그분을 위한 축복이 나날이 계속되게 하소서
16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禾穀)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16 들판에는 곡식이 풍성하여 산등성이까지 넘치고, 그 열매는 레바논 산림처럼 물결치고, 사람들은 성읍마다 들판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소서.
17 그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 구하리로다	17 임금님 이름이 영원하고, 해가 있을 동안 그 이름이 영원케 하소서. 못 민족이 그분 때문에 복을 얻고서 그분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소서.
18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18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19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20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왕정일 때에도 좋은 왕이 다스리면 그 왕의 치세 동안에는 큰 평안을 누립니다. 선거로 정치 지도자를 확정하는 대통령제나 내각 책임제에서는 선거가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만큼 좋은 지도자가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솔로몬의’ 혹은 ‘솔로몬에게’라는 말이고, ‘시’라는 말도 없습니다. ‘시’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하면,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말도 되고 ‘솔로몬에게 바치는 시’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하는 말로 끝납니다. 따라서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왕의 아들, 자신의 아들을 위한 다윗의 기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위한 기도인데, 솔로몬 개인에게 향한 기도가 아니라 ‘직분자인 솔로몬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보면 왕과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그 직분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1. 공의로운 왕과 평화를 위한 기도 (1-2절)

1) 공의를 위한 기도 (1-2절)

- 1 하나님, 주님의 판단력을 임금에게,
주님의 의로움을 임금의 아들에게 내려 주십시오.
- 2 임금이 주님의 백성을 의로 재판하고
주님의 가난한 이들을 공의로 판단케 하소서.

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처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력을 임금에게 내려 주시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가난한 이들을 공의로 재판하게 할 수 있기를 구하는데, 이러한 판단력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솔로몬도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판단력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창녀에 관한 재판 이야기를 읽으면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의 판단력을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로 아이를 잘라서 반쪽씩 나눠 주라’는 판결로써 진짜 어머니를 식별해 내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한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왕상 3:28).

시인은 2절에서 임금이 ‘주님의 백성을 의로 재판하고 주님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게 해 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 말은 억울한 일을 당한 가난한 자의 형편을 살피고 돌본다는 뜻도 있지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의 편을 들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판단한다는 뜻입니다(참조 신 1:17; 출 23:3, 6).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시인은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이유로 가난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아서 가난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나뭇처럼 조상의 기업을 양보하지 않다가 아합에게 핍박을 당한 사람이 ‘주님의 가난한 자’에 속합니다(참조 마 25:40; 히 10:32-33).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임금도 그

러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2) 의의 열매와 평화를 위한 기도 (3-4절)

- 3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언덕들은 공의로 열매를 맺게 하소서.
- 4 임금이 가난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궁핍한 사람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고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 주십시오.

임금이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을 공정하게 판단하면 그 나라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평화’로 번역한 ‘샬롬’은 내적인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3절에서는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준다’고 노래하는데 그 평화의 내용을 16절에서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들판에는 곡식이 풍성하여 산등성이까지 넘치고,
그 열매는 레바논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고,
사람들은 성읍마다 들판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소서.

산이 백성에게 ‘샬롬’을 준다는 말은 산이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내놓아서 그 백성이 넉넉하게 먹고 살 만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잘 지키고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셔서 산들도 곡물들을 잘 내어놓습니다. 산에도 평강이 가득합니다. 잘 익은 곡식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는 레바논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넉넉하고 여유로운 평화와 번영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참조 시 85:10-12; 사 45:8; 48:18).

3절에서는 의의 결과로 자연계에게까지 평강이 넘치는 것을 노래하였는데, 4절에서는 다시 의를 노래합니다. 임금이 ‘백성의 가난한 자를 변호’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기 쉬운데 그러한 사람을 정당하게 변호해 줍니다. 또한 ‘궁핍한 사람의 자손을 구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자녀가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것이 그 부모에게는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왕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궁핍한 사람의 자손을 구원하여 줍니다.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난과 부가 고착화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의로운 임금은 율법의 뜻을 잘 알아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자연계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 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5-7절에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2. 영원하고 광대한 나라 (5-11절)

1) 영원한 평화의 나라 (5-7절)

- 5 해가 있을 동안에 그들로 주님을 경외케 하소서.
달이 빛을 잃을 때까지 대대로 경외케 하소서.
- 6 임금이 베어낸 풀 위에 단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내려오소서.
- 7 그분이 다스리는 동안 공의가 움터 나오고
달이 다 닳을 때까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소서.

시인은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그들로 주님을 경외케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2인칭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임금을 경외케 하소서’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갑자

기 2인칭으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왕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좋은 표현법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바른 판단력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이 베푼 풀에 내리는 단비와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내린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인데, 우기의 처음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이고, 마지막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라고 합니다(참조 약 5:7). 이른 비가 단비처럼 내려서 촉촉이 적시고(참조 암 7:1), 2월쯤 되면 비가 소나기처럼 내려서 사막에 '와디'라는 계절천이 흐릅니다. 우기에 비가 땅속 깊이까지 스며들면서 강을 이루고 가니까 우기가 되면 자연 환경이 싹 바뀝니다. 풀들이 다시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고 양과 염소가 와서 풀을 뜯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시인은 그러한 평화로운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기도합니다. 임금이 단비처럼 내려서 풀들이 나고 양이나 염소나 소가 와서 풀을 뜯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을 바랍니다.

비가 내려서 싹이 나는데, 시인은 7절에서 '공의가 움터서 나오고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구합니다. 임금이 비처럼 내리자 공의의 싹이 나오고 평강의 열매가 맺히고, 공의로 말미암은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시인은 그러한 평화가 달이 다 닳을 때까지 계속되기를 구합니다. 영원히 그 의로운 나라가 번성하고 전진할 것을 구합니다. 농부의 말로 성경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비가 내리면 자연계의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 지혜롭고 의로운 임금이 오시면 그 사회 전체가 풍요롭게 됩니다. 압제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고, 참된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토록 평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해와 달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그 평강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8절부터는 그 나라가 광대무변할 것을 기도합니다.

2) 광대무변한 나라 (8-11절)

- 8 임금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9 광야 유목민이 임금 앞에 엎드리고
원수는 땅바닥 먼지를 핥게 하소서.
- 10 다시스와 섬나라의 왕들이 예물을 바치게 하소서.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 11 온 세상 왕들이 그분께 경배하게 하소서.
온 세상 나라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소서.

영원한 나라는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8-11절에서는 그 나라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육지나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에서 '강'은 유프라테스강을 가리킵니다. 유프라테스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직 발로 밟아 본 적이 없는 저 땅 끝까지, 온 세상 끝까지 그 나라가 이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유프라테스강까지가 이스라엘의 경계였으나 지금 이야기하는 영원한 왕은 유프라테스강에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는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참조 창 15:17; 신 11:24; 수 1:4; 속 9:10).

'광야에 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동쪽의 사막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와서 왕 앞에 부복을 할 것입니다.

또 '왕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는다'고 하였는데 '티끌을 핥는다'는 말은 '흙을 먹는다,' 즉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뱀이 실제로 흙을 먹

는다는 뜻이 아니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왕의 원수들이 완전히 멸절될 것을 이러한 말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참조. 사 49:23; 미 7:17).

땅 끝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데, 지중해 저쪽 맨 끝에 있는 서편과 거기에 있는 섬나라에서도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와서 많은 선물을 준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스바는 아라비아 남쪽에 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시바는 에디오피아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창 10:7; 사 43:3). 말하자면 남쪽 끝에 있는 지역에서도 왕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그 왕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의 여러 지역을 열거한 다음에 11절에서는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고 모든 나라가 그 왕을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시온의 나라가 온 세상을 차지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서 찬송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왕을 생각하면서 그 왕의 나라가 영원하고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공의로운 임금의 인자한 통치 (12-14절)

- 12 그분은 하소연하는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고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들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 13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구해주신다.
- 14 그분이 그들을 억압과 폭력에서부터 구속해 주시니
그들의 피를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이다.

12-14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임금은 의로울 뿐 아니라 사랑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임금은 하소연하는 가난한 이들을 구원합니다. 사람이 궁핍하다 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가난한 사람을 임금은 사랑의 마음으로 돌봅니다.

임금은 '도와줄 사람 없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품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구속”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가알'을 번역한 말입니다. '가알' 혹은 '고엘'은 다른 식구나 친척을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도와주어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워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아스는 룻의 '고엘'이었습니다. '고엘'이신 하나님께서 압박당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압박당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가난한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고엘'이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은 가족의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억울하게 피를 흘린 일이 있으면 고엘이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들의 피를 귀하게 보신다”는 다음 구절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가난한 사람을 자기의 식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를 귀하게 보시고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12-14절에서는 의로운 임금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풀어 주시되 그들을 식구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는 분이시고, 악인의 폭력과 압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표하여 의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임금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의로운 임금의 통치로 말미암은 평화를 노래하고, 그러한 평화를 가져올 임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 임금을 위한 기도 (15-17절)

- 15 임금님, 만수무강하소서
 스바의 금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그분을 위한 축복이 나날이 계속되게 하소서
- 16 들판에는 곡식이 풍성하여 산등성이까지 넘치고,
 그 열매는 레바논 산림처럼 물결치고,
 사람들은 성읍마다 들판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소서.
- 17 임금님 이름이 영원하고,
 해가 있을 동안 그 이름이 영원케 하소서.
 못 민족이 그분 때문에 복을 얻고서
 그분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소서.

의롭고 사랑이 있는 임금이 다스리면 그 나라에는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백성은 임금님에게 "만수무강하소서" 하고 구합니다. 사랑과 의와 능력이 있는 임금이 오래 살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사랑과 의가 넘치고 원수는 발을 붙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백성은 스바의 임금이 그곳의 금을 임금에게 바치기를 기도합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칭송하면서 많은 금을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혜를 사용하여 그 나라의 부와 능력을 확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성은 "그분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그분을 위한 축복이 나날이 계속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고 사랑과 지혜가 있는 왕을 세워 주시면 그것이 그들에게도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는 의로운 임금의 통치로 말미암아 산꼭대기에도 곡물이 풍성하고 온 나라에 평안이 가득하다고 노래합니다(참조. 욥 3:18). 그리고 계속하여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읍마다 들판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소서." 곡식이 풍성하니까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왕상 4:20).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것은 메시아 시대를 예표하는 일입니다(참조. 사 49:20 이하).

의로운 임금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평화가 가득한데 초점은 평화와 번영 자체가 아니라 임금의 이름에 향합니다. 17절에 "임금님 이름이 영원하고 해가 있을 동안 그 이름이 영원케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해가 모든 사람과 자연 만물을 늘 비추듯이, 임금의 은택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못 민족이 그분 때문에 복을 얻고서 그분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소서" 하고 구합니다. 임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그 임금을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되다고 하였는데, 다른 민족들도 모두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임금이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가면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이전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였고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반복됩니다(창 12:2-3; 22:18; 26:4; 28:13-14).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다윗의 이

름도 영원한 의미를 지닙니다.

백성이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금의 이름을 높이고 임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친숙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밭에 소출이 넉넉하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 해와 비를 내려 주시기를 구하지만,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임금에게 의와 사랑과 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심을 알고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을 잘 알고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직분자를 통하여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결과로 풍요로움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5. 임금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18-20절)

- 18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19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 20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나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그들의 기도가 거기에서 멈춘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임금을 통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18-19절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찬송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놀라운 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사(奇事)라고도 번역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72편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직분자 임금을 통하여서 구속의 일을 베푸시는 것을 뜻하고, 더 넓게는 온 나라에 가득한 평강과 번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의와 사랑과 지혜를 나타내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의 사랑을 받는 임금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고 이방 민족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고 구원을 베풀습니다. 인간 직분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를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은 소임이 끝나면 주님께로 돌아가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계속 남아 있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참조 사 6:3).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임금을 위한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백성은 모두 한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다(참조 대상 16:16; 느 8:6).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마음으로 외칩니다.

6.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시편

1) 그리스도의 시편

시편 72편은 임금을 위한 기도인데, 구체적으로는 솔로몬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는 솔로몬에게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영원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은 왕이 기도 하였습니다. 왕권을 넓히려는 생각에서 우상을 섬기는 데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임금을 위한 이 시편의 기도는 결국은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로서 다윗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

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의와 판단력으로 다스리셨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크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무지와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 밑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사람들'을 친히 품에 안고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의로운 통치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거기에서 얻은 의를 주님의 백성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사랑과 지혜와 의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는 능력의 임금님이십니다. 9절에서 임금의 원수는 땅바닥 먼지를 밟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땅의 티끌을 먹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사 65:25). 왕의 원수가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뱀에게 땅의 티끌을 먹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대로 사탄은 십자가로 인해 멸망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써 사탄과 사망을 폐하시고 참된 빛을 비추기 시작하신 이후로, 그 나라는 온 세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 안에서 복을 얻으려고 예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스나 여러 섬들이나 스바나 시바 같은 나라로 표현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복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님의 이름도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는 해와 달보다도 더 영원합니다. 72편에서는 해와 달이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처음 창조에 속한 해와 달이 없어진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2) 통치를 받는 백성의 형편

72편을 통치자의 관점이 아니라 백성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 평화와 구원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 은덕은 누가 누립니까? 2절에서는 “주님의 가난한 이들,” 4절에서는 “가난한 백성, 궁핍한 사람의 자녀,” 12절에서는 “하소연하는 가난한 이들”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들,” 13절에서는 “약하고 가난한 이들” “가난한 이들,” 14절에서는 “억압과 폭력을 당하는 이들,” 그리고 17절에서는 “못 민족”을 말합니다. 부자나 여유가 있는 사람, 하소연할 필요가 없이 넉넉한 사람은 임금이 주는 의와 평화의 복을 받는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깊이 깨닫는 부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번성함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그분은 가난한 자(마 19:21; 눅 6:20), 과부(눅 7:11-15), 사회에서 격리된 문둥병자(눅 17:12-19), 귀신 들린 자(마 12:22; 막 16:9), 창녀나 세리(마 21:31) 등과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영원한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모두 가난합니다.

세상에서는 외적인 조건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서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유유상종(類類相從)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항상 있는데,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그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는 교회이고, 그러한 교회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서 세례를 받으면 축하하는데, 그 아이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렵니다. 교회 안에는 어린 신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린 신자가 있는 교회가 활기찬 교회이며 참된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항상 어린 신자가 있고, 또한 말씀을 잘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 직분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마지막으로 직분자를 위한 기도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인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해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왕을 '나의 아들'이라고 입양하시고, 그 왕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라는 직분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함께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가져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이라는 말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72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편이 그리스도에게서 다 성취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와는 무관한 시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시편은 이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서도 이 시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직분자가 된 우리는 직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결코 바르고 능력이 있게 행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72편에서 배워서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첫째, 가정에서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의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을 위하여 기도는 하지 않고 그의 부족한 점만 짓거하는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집이고, 따라서 의로운 통치나 참된 평화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또한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5계명에서 배운 것처럼 부모의 연약과 결핍에 대해서도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말씀의 심부름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사가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언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실하다고 하여도, 그의 성실함으로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목사도 그 직분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교우들도 목사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어 봉사할 수 있는 목사를 보내 주시고, 그 목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먹이십니다. 교우들이 목사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의와 지식과 사랑을 주시라고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사도로서 잘 갖추어진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교육이나 자질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롬 15:30-32; 엡 6:19).

4) 직분자의 태도와 송영

72편은 직분자를 위한 기도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을 위한 기도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인데, 모든 사람은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72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결론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직분자는 자기의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임금을 위한 기도와 감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로 향합니다. 따라서 직분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수행할 뿐 아니라 자기의 사역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의 봉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임금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그 결과 그의 나라와 자연계가 평안할 뿐 아니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임금이 존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하나님의 직분자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할 뿐 아니라 교우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로마 가톨릭처럼, 목사가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 어떤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행한다면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참된 직분자인 예수님을 향한 기도였는데, 예수님은 이 시편을 겸손한 분으로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의로운 통치를 완수하셨습니다. 군마를 타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논쟁하여 이루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이루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면서 나아가면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신실하게 직분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의가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모두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실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원히 높임을 받는 그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만물이 주님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우리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홀로 행하시는 기이한 분'이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그러한 복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도는 이렇게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2003년 1월 1일)